

# 인종별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분포 특성

## Spatial Distribution of Ethnic Enclaves in Korea

민성희 Min Seonghee\*, 안용진 Ahn Yongjin\*\*, 박정호 Park Jungh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patial distribution of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This study focused on ethnic enclaves which are identified spatial clusters at the level of eup-myeon-dong by LISA analysis and binary logit regress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patial distribution of ethnic enclaves significantly vary by their home country. Second, Chinese enclaves are generally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SMA) showing high residential ratio of Chinese multicultural family. Third, while Vietnamese enclaves are considerably concentrated in Daegyeong or Dongnam region, Philippine enclaves are along the west side of Korea, especially, ChungCheong and Jeolla region. Lastly, Japanese enclaves are concentrated in SMA and its surrounding areas in Gangwon or Chungnam region revealing relatively high residential ratio of Japanese multicultural family. These results are supported by binary logit analysi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future policies to support social assimil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enhance their living conditions centered on ethnic enclaves in Korea.

Keywords: Multicultural Family, Ethnic Enclaves, Spatial Distribution, LISA Analysis, Location Determinant Factor

### I. 서론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지 불과 6년 만에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150만 명에 다가섰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의 빠른 성장세 못지않게 최근 10년간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건수도 두 배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혼인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4.6%에서 9.0%로 비중이 확대되었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3). 국경을 넘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들이 점차 우리 사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y)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족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의미한다. 과거 ‘국제결혼가정’, ‘혼혈가정’, ‘코시안(Kosian)’, ‘온누리안(Onnurian)’ 등의 용어가 다문화가족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2006년부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박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제1저자)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Primary Author | shmin@krihs.re.kr

\*\* 대구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조교수(교신저자) | Assistant Prof., Dep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aegu Univ. | Corresponding Author | yjahn@daegu.ac.kr

\*\*\* 남가주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 | Ph.D. Candidate, Sol Price School of Public Policy, Univ. of Southern California | junghopa@usc.edu

대식 2010).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전되는 세태를 반영하여 2011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 귀화자까지 다문화가족에 포함되도록 그 개념이 확대되기도 하였다.<sup>1)</sup>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2012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산한 규모는 22만 687명에 이르렀다(행정안전부 2012). 향후 한국인의 자녀세대와 함께 성장하고 생활하게 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도 이미 16만 8,583명으로 늘어나면서 단일 민족의 역사를 가진 우리 사회에서 소수의 위치를 점하던 다문화가족의 입지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제 이주를 통해 유입된 소수민족의 인구 집단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유무형의 상호 네트워크로 구성된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구축된 유무형의 네트워크가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에 장소화되면서 동일한 국가 출신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면 교육기관과 복지시설, 종교시설, 음식점, 생활용품점 등 출신 국가와 연관된 인프라가 구축되고 동일 인종 간 사교활동과 정보교환의 중심지로 기능하는 밀집거주지(ethnic enclave)가 형성된다(Logan and Zhang 2004; 박세훈, 이영아, 김은란, 정소양 2009; 최병두, 임석희, 안영진, 박배균 2011).

최초 이민자의 거주지 선택은 무작위 혹은 최대의 효용을 주는 지역이 주를 이룬다면, 그 이후 동일한 국가 출신자들의 거주지 선택은 최초 이민자의 선택에 종속되는 특징이 있다(Massey, Arango, Hugo and Kouaouci et al. 1993; Jennissen 2004). 이민자들의 거주지 선택에 있어서 선점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다.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진 해외에서 이민자들의 이민국 정착과 사회동화에 대한 연구가 밀집거주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Bartel 1989; Myers and Lee 1996; Chiswick and Miller 2005).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체류자격이나 출신 국가별로 외국인의 밀집거주지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간적으로 다소 광범위한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이 수행되거나(정지은, 하성규, 전명진 2011; 이진영, 남진 2012), 특정 동단위 지역을 사례 대상으로 분석이 수행된 바 있다(박신영, 김준형, 최막중 2012). 일부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의 연구도 진행되었으나 자료의 가용성으로 공간적으로 서울에 국한되었다(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박운환 2010; 손승호 2008). 한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시켜 전국 차원에서도 밀집거주지나 정주 패턴을 파악하려는 연구도 이루어졌으나, 통계적 검증을 통해 밀집거주지를 규명하지는 않았다(이희연, 김원진 2007; 박세훈, 정소양 2010).

이와 같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공간분포 패턴과 밀집거주에 대한 연구는 최근 예상보다 빠른 다문화사회의 진전에 대응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서울이나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의 밀집거주지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다소 공간적으로 광범위한 시·군·구 단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전국 차원에서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 밀집거주지의 공간분포 패턴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제결혼의 증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여기서 '결혼이민자'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

가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정주화(定住化)를 견인하는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바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전국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의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분포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09) 원시자료이며,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조선족, 중국인 한족 등 기타 민족, 베트남인, 필리핀인, 일본인과 같이 5개국 아시아계 인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를 규명하기 위해 전국 3,46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LISA(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분석을 실시하였으며,<sup>2)</sup> 이항 로

짓모형을 이용하여 밀집거주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 II. 밀집거주지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을 비롯하여 외국인의 밀집거주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분석 대상(외국인 체류자격, 국적 등), 공간적 범위, 분석단위, 분석방법 등의 측면에서 밀집거주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표 1〉 참조).

특히, 밀집거주지를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김희철, 안건혁(2011)은 기존에 잘 알려진 외국인 마을, 외국인 거리 등 ‘외국인 커

표 1 \_ 밀집거주지에 관한 주요 국내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분석 대상	분석 범위 및 단위	분석 기준 및 결과
이희연, 김원진 (2007)	여성 결혼이민자	전국 시·군·구	•출신 국가별 여성 결혼이민자수의 정주패턴 제시
손승호 (2008)	전체 외국인	서울 구 또는 동	•출신 국가별 외국인 분포 수위지역의 변화 제시
박세훈, 정소양 (2010)	전체 외국인	전국 또는 수도권 시·군·구	•체류 자격별 외국인수 기준치 이상 •체류 자격별로 6~9개 시·군·구
박윤환 (2010)	전체 외국인	수도권 읍·면·동	•외국인과 내국인 간 거주지 분리 정도 제시(상이지수)
김희철, 안건혁 (2011)	전문 인력 및 노동자	수도권 시·군·구	•외국인 커뮤니티 1개 이상 입지 •수도권 65개 시·군·구 중 16개
정지은, 하성규, 전명진 (2011)	전체 외국인	수도권 시·군·구	•출신 국가별 분포의 편향도와 표준편차거리(km) 제시 (바키측정치)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전체 외국인	서울 구 또는 동	•체류 자격별·출신 국가별 군집 및 공간적 비유사성 제시 (비유사성지수)
이진영, 남진 (2012)	전체 외국인	수도권 시·군·구	•외국인의 거주지 특화지역과 분리지역 상위 10개 지역 제시 (입지계수, 상이지수)

주: 이희연, 김원진(2007); 손승호(2008); 박윤환(2010); 정지은, 하성규, 전명진(2011);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2011); 이진영, 남진(2012)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에서 밀집거주지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음.

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09)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센서스용 행정구역 경계를 읍·면·동 단위에서 매칭하여 총 3,465개의 읍·면·동으로 재구성하였음.

뮤니티'가 1개 이상 위치한 시·군·구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수도권 65개 시·군·구 가운데 16개 시·군·구 소재 '외국인 커뮤니티'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정지은, 하성규, 전명진(2011)은 바키 측정지(bachi index)를 계산하여 수도권 거주 외국인의 출신 국가별 인구분포의 편향도와 표준편차거리(km)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출신 국가별로 인구분포의 치우침과 집적된 정도를 비교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이진영, 남진(2012)은 입지계수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거주지 특화지역을 상·하위 1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으며, 상이지수(index of dissimilarity)를 이용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 수준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밀집거주지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미시적인 공간단위에서 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Myers and Lee 1996; Fawcett 1989; Bartel 1989; Borjas 1998; Chiswick and Miller 2005). 특히, Logan and Zhang(2004)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과 필리핀 출신 이민자를 사례로 센서스 트랙(census tract) 단위에서 밀집거주지의 클러스터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민자들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매우 강하여 기존의 odds-ratio를 활용한 분석방법보다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분석방법이 밀집거주지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에 이루어진 해외 연구의 동향과는 달리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외국인 밀집거주지 관련 연구는 다소 거시적인 공간단위에서 분석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미시적인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의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자료의 가용성으로 인해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거주지의 선정 기준에서도 외국인 커뮤니티의 입지 여부, 입지계수·상이지수 기준 상위 10개 지역, 외국인 체류

유형별로 상이한 규모 기준과 같이 대부분 밀집거주지를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논문은 통계적 검증을 토대로 전국의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에서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분포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I. 다문화가족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 1. 다문화가족의 지역별 공간분포

전국적인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별 성장 추세를 지역 차원에서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시·도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경기도 27.0%, 서울 21.6%, 인천 5.7%로 전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중에서 수도권 거주자가 54.3%에 이르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07년 이후 최근 4년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수의 증가 추세(38.5%)가 두드러졌다. 규모 측면에서는 수도권의 증가 추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점차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수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증가율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유입지역이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에 따른 시·도별 분포를 보면 <표 2>와 같이 중국인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으며, 베트남인은 대경권과 동남권에, 필리핀은 충청권, 호남권과 제주권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별로 출신 국가에 따라 상이한 다문화가족의 분포는 한국문화와 언어에 대한 친밀도, 우리나라 이민제도의 변화, 국제결혼 추세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이민의 역사가 상이한 결혼이민자들이 출신 국가별로 서로 다른 거주지역으로 점차 집중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_ 출신 국가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시·도 분포(2009년)

시·도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등)		베트남		필리핀		일본	
	N	%	N	%	N	%	N	%	N	%
서울	10,949	27.4	9,626	26.8	2,092	8.1	780	8.9	997	18.3
부산	1,776	4.4	1,606	4.5	1,455	5.7	372	4.3	195	3.6
대구	1,216	3.0	1,101	3.1	1,262	4.9	202	2.3	137	2.5
인천	3,089	7.7	2,796	7.8	907	3.5	369	4.2	191	3.5
광주	754	1.9	683	1.9	616	2.4	289	3.3	131	2.4
대전	752	1.9	681	1.9	484	1.9	345	3.9	90	1.7
울산	643	1.6	581	1.6	955	3.7	142	1.6	49	0.9
경기	11,318	28.3	10,241	28.5	4,045	15.7	1,423	16.3	1,111	20.4
강원	843	2.1	763	2.1	904	3.5	524	6.0	284	5.2
충북	1,000	2.5	905	2.5	1,220	4.7	424	4.8	201	3.7
충남	1,653	4.1	1,495	4.2	2,075	8.1	794	9.1	404	7.4
전북	1,194	3.0	1,081	3.0	1,534	6.0	740	8.5	342	6.3
전남	1,149	2.9	1,039	2.9	2,032	7.9	1,057	12.1	516	9.5
경북	1,306	3.3	1,183	3.3	2,762	10.8	481	5.5	319	5.9
경남	2,013	5.0	1,821	5.1	2,978	11.6	610	7.0	397	7.3
제주	345	0.9	312	0.9	67	1.4	196	2.2	79	1.5
전국	39,998	100.0	35,913	100.0	25,688	100.0	8,748	100.0	5,443	100.0

주: 원시자료에 가중치를 곱하여 전수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출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시자료 2009.

## 2.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출신 국가별 분포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전국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거주지의 공간적 자기상관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모란지수(Global Moran's I)를 도출하였다. 분석 방법은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공간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한 Rook 방법<sup>3)</sup>을 이용하여 공간가중행렬을 구축하고 전역적 모란지수를 출신 국가별로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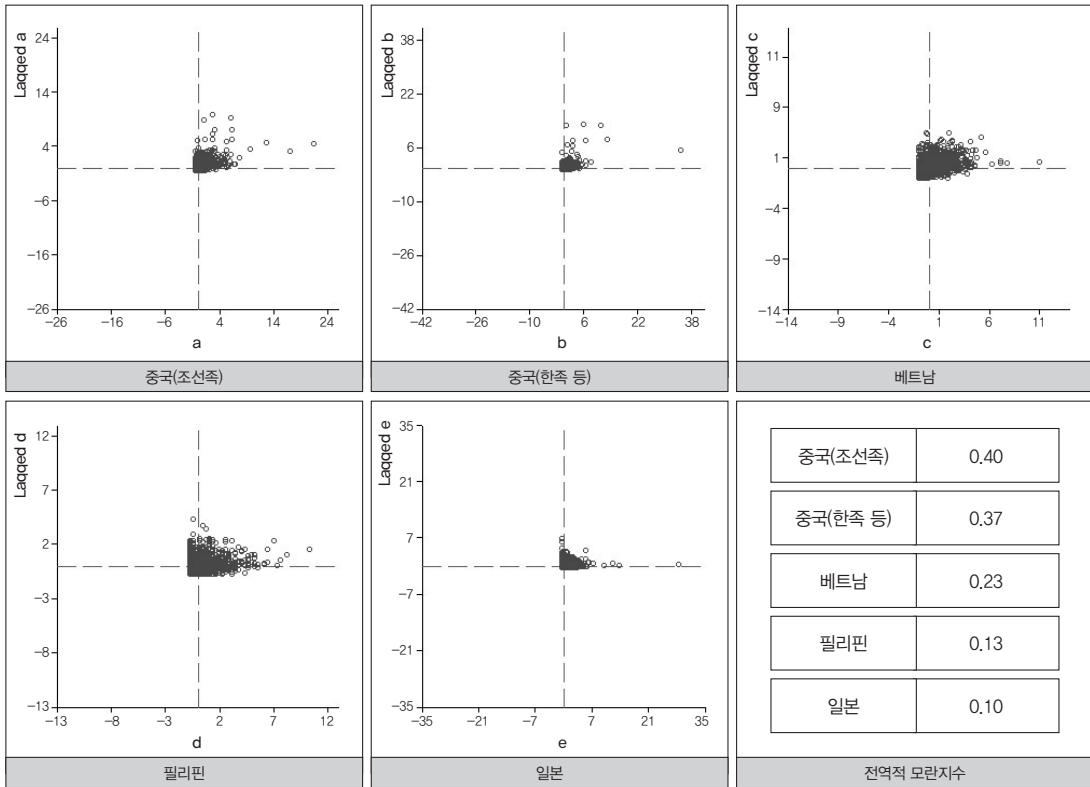
출신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의 공간분포에 대한 전역적 모란지수를 도출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정(+)의 계수가 산출되어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의 모란지수값은 0.40, 중국 한족 등 기타 민족은 0.37, 베트남은 0.23, 필리핀은 0.13, 일본은 0.10으로 나타나 중국의 경우 상당히 높은 결과값이 도출된 반면에 베트남과 필리핀, 일본인은 다소 결과값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전역적 모란지수값이 도출된 결과에 근거했을 때, 다문화가족 공간분포는 출신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국 읍·면·동 차원에서 출신 국가별로 특정 인종이 많은 지역과 바로 인접한 주변지역에는 동일한 인종이 많은 지역이 분포하고, 반대로 특정 인

3) Rook 방법은 인접(contiguity) 공간가중행렬의 한 종류이며, 본 논문에서는 Row-standardized하여 공간가중행렬을 구축하였음.

그림 1\_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적 자기상관도를 나타낸 산포도와 전역적 모란지수



주: 원시자료에 가중치를 곱하여 전수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출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시자료 2009.

종이 적은 지역과 인접한 주변지역에는 동일한 인종이 적은 지역이 분포하면서 다문화가족의 공간분포는 출신 국가별로 강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모란지수값이 높은 중국 조선족에서 동일 인종이 많은 지역의 주변지역에 동일 인종이 많이 거주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전역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공간분포가 공간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국지적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지리적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Logan and Zhang(2004)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를 규명하는 명확한 기준과 방법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국지적 차원에서 공간적 연관성을 측정하는 Anselin(1995)의 국지적 모란지수(Local Moran's I)가 유용함을 밝

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한 국지적 모란지수를 산출하였다.

$$\left[ \frac{n^2}{\left( \sum_{i=1}^n \sum_{j=1}^n W_{ij} \right)} \right] \frac{(x_{ei} - \bar{X}_e) \sum_{j=1}^n W_{ij} (x_{ej} - \bar{X}_e)}{\sum_{i=1}^n (x_{ei} - \bar{X}_e)^2}$$

여기서  $I_{ei}$ 는  $e$ 인종의  $i$ 지역 국지적 모란지수를 의미한다.  $X_{ei}$ 는  $e$ 인종의  $i$ 지역 다문화가족 이민자수를,  $X_{ej}$ 는  $e$ 인종의  $j$ 지역 다문화가족 이민자수를,  $\bar{X}_e$ 는  $e$ 인종의 평균 다문화가족 이민자수를,  $W_{ij}$ 는 공간가중행렬을 각각 의미한다.

국지적 모란지수를 활용하여 국지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문화가족과 같은 특정 인구집단의 밀집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공간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Logan and Zhang(2004)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과 필리핀 출신 이민자를 사례로 밀집거주의 공간 범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와 유사한 센서스트랙(census tract) 단위의 분석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동일한 맥락에서 국내 다문화가족의 밀집된 거주지를 분석함에 있어 시·도 단위나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 범위는 다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논문은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국지적 모란지수를 도출하였다.

국지적 모란지수는 특정 지역의 값과 인접한 주변 지역들이 갖는 값의 가중 평균값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면 정(+)의 자기상관으로, 반대로 특정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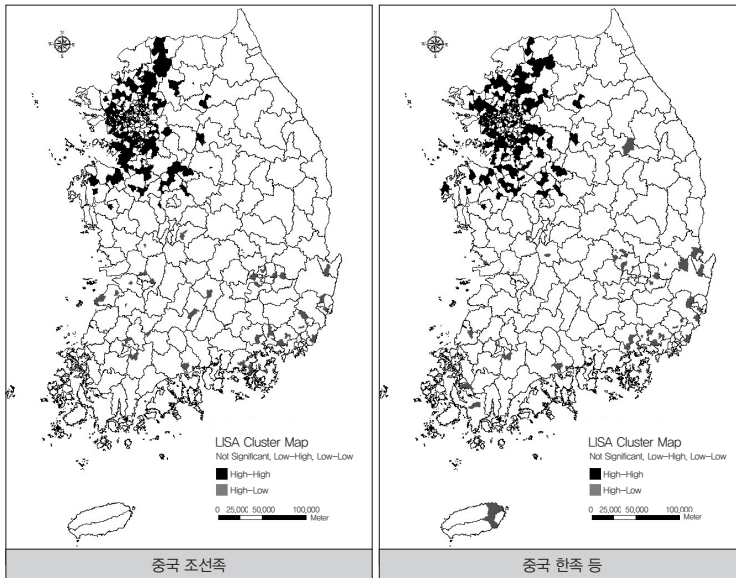
역의 값과 인접한 주변지역들의 가중평균값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 부(-)의 자기상관으로 판정하게 된다(이희연, 노승철 2012). 따라서 국지적 모란지수 값을 통해 개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규모와 인접한 주변지역에 유사한 값을 갖는 공간적 군집의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 분포의 공간적 연관성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기준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HH유형(high-high), 높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HL유형(high-low), 낮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LH유형(low-high), 그리고 낮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LL유형(low-low)이다. 본 논문은 전국의 읍·면·동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국지적 모란지수를 도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HH

표 3\_ 출신 국가별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의 시·도 분포와 시·도별 밀집거주율(2009년)

시·도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등)		베트남		필리핀		일본	
	밀집거주지(개소)	밀집거주율(%)	밀집거주지(개소)	밀집거주율(%)	밀집거주지(개소)	밀집거주율(%)	밀집거주지(개소)	밀집거주율(%)	밀집거주지(개소)	밀집거주율(%)
서울	235	89.2	241	90.9	59	43.4	26	26.0	138	78.6
부산	8	12.9	9	18.9	15	20.0	12	24.4	15	38.0
대구	10	24.0	6	15.0	27	42.6	11	39.5	14	47.8
인천	80	86.2	84	87.1	16	28.0	0	0.0	6	18.8
광주	5	22.6	6	29.5	2	8.6	14	43.0	0	0.0
대전	0	0.0	1	6.5	1	4.0	26	79.0	2	17.3
울산	4	19.0	4	22.7	39	91.1	10	57.1	3	38.3
경기	240	85.1	241	86.4	84	40.4	26	22.5	144	75.6
강원	5	13.7	5	14.5	20	32.8	10	21.2	20	49.1
충북	10	28.8	6	19.4	11	22.0	15	41.6	10	41.6
충남	22	37.3	24	47.3	31	33.4	77	75.2	42	65.1
전북	9	18.2	4	9.6	9	11.8	54	56.3	12	22.5
전남	4	9.1	7	20.6	18	20.2	87	66.6	20	37.5
경북	5	9.3	13	27.9	77	47.3	26	34.7	27	42.0
경남	20	33.0	16	31.6	87	55.7	43	48.3	27	42.8
제주	0	0.0	2	22.9	1	10.5	13	66.9	0	0.0
전국	657	62.5	669	64.5	497	36.7	450	43.1	480	53.2

주: 원시자료에 가중치를 곱하여 전수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출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시자료 2009.

그림 2\_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적 클러스터 패턴(중국 조선족, 한족 등)



주: 1) 원시자료에 가중치를 곱하여 전수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함.  
 2) 전국 읍·면·동 단위 국지적 Moran지수 분석결과 HH유형 밀집거주지는 검정색으로, HL유형 밀집거주지는 회색으로 각각 표시하였음.  
 출처: 민성희, 박정호 2013;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시자료 2009.

유형과 HL유형만을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로 정의하였다.

국지적 Moran지수를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표 3>과 같이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가 전국적으로 다수 분포하고 있었으며, 공간분포 패턴은 출신 국가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전국 차원에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일본 출신 다문화가족들이 밀집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총 1,517개소로 전국 3,465개 읍·면·동 가운데 43.8%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디까지나 다문화가족 분포의 공간적 자기상관성만을 기준으로 도출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최근 다문화사회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많을수록 밀집거주지도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과 한족 등 기타 민족은 각각 657개소, 669개소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밀집거

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베트남인은 497개소, 일본인은 480개소, 필리핀인은 450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인은 다문화가족의 규모에 비하여 밀집거주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밀집거주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의 밀집거주지는 수도권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전체 657개소의 중국 조선족 밀집거주지 가운데 84.5%에 달하는 555개소가 수도권에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이들 수도권에 위치한 중국 조선족 밀

집거주지는 다문화가족 거주율이 서울(89.2%)과 인천(86.2%), 경기(85.1%) 등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 조선족들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한국어 구사 능력 및 한국문화와의 친화성을 바탕으로 제조업보다는 저차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사무직·판매직에 종사하는 한국인 남편과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집값이 저렴한 서울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에 밀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이희연, 김원진 2007; 박세훈, 정소양 2010; 정지은, 하성규, 전명진, 2011).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중국 한족 등 기타 민족은 전체 669개소의 밀집거주지 중 84.6%에 해당하는 566개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그림 2> 참조). 다만 중국 한족 등 기타 민족의 경우에는 조선족과 달리 대전과 제주에도 밀집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은 대전에서 유일한 중국인 밀집거주지로 대전시 전체 중국인 다문화가족 중에



그림 3\_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적 클러스터 패턴(베트남, 필리핀, 일본)



주: 1) 원시자료에 가중치를 곱하여 전수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함.

2) 전국 읍·면·동 단위 국지적 모란지수 분석결과 HH유형 밀집거주지는 검정색으로, HL유형 밀집거주지는 회색으로 각각 표시하였음.

출처: 민성희, 박정호 2013;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시자료 2009.

서 6.5%가 거주하는 밀집거주지로 나타났고, 제주에도 중국인을 겨냥한 제주 동부 의료관광지역으로 제주시 구좌읍과 제주시 표선면에 밀집거주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03년 이후 최근 국제결혼을 통해 농촌으로 유입되고 있는 베트남인의 밀집거주지는 497개소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베트남인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는 수도권 집중 성향을 보인 중국인 밀집거주지와는 다르게 대경권과 동남권에 절반에 가까운 49.3%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경상도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 남성들과 혼인하는 외국인 여성의 상당수가 베트남인이라는 점에서 밀집거주지는 동지역보다 읍부나 면부와 같은 농촌에 주로 분포하였다. 전국적으로 베트남인은 밀집거주지 내 거주율은 36.7%로 다른 인종에 비해 밀집거주지 성향이 낮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는 거주율이 91.1%로 매우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필리핀 출신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는 수도권부터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한편, 서해안을 따라 충남 77개소와 전북 54개소, 전남 87개소에 전체 밀집거주지의 48.4%가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다문화가족을 이룬 필리핀 여성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유로 국내에 자리 잡은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분포패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하게도 제주도의 경우에는 필리핀 다문화가족수가 많지 않은데도 다른 인종보다 많은 13개소의 밀집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어 다른 인종에 비해 강한 밀집거주 성향을 보여주었다.

일본인의 밀집거주지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강원도 일부지역으로 확산되고, 남쪽으로는 충청남도에 형성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그림 3) 참조). 일본인의 경우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출신 다문화가족보다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전국 밀집거

주율이 53.2%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적 분포 패턴은 출신 국가별로 차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분포 패턴은 국제결혼 동기와 한국문화 친밀도, 밀집거주 성향 등과 같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IV.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국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이민자(중국 조선족과 한족 등 기타 민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밀집거주지 거주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09)를 활용한 이항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이항로짓 모형은 확률모형으로서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때 사용되는 모형이다(이성우, 민성희, 박지영, 윤성도 2005).

$$y^* = \sum_{k=1}^k \beta_k x_k + \xi \quad \langle \text{식 1} \rangle$$

이항분포의 무작위성분을 가정하고,  $\xi$ 이 로짓분포라고 가정할 때, 로짓모형을 적용할 수 있고, 그때 연계함수는 로짓이 된다(이성우, 민성희, 박지영, 윤성도 2005).

$$\eta = \log[\mu/(1-\mu)] \quad \langle \text{식 2} \rangle$$

기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밀집거주지 거주 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인은 <표 4>의 내용과 같으며, 구체적인 독립변인은 크게 개인 및 가구변인, 지역변인, 상호작용 변인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개인 및 가구변인은 연령, 이민기간, 성별, 교육수준, 한국국적 취득 여부, 취업 여부, 가구소득, 자

가소유, 자녀유무, 언어능력(말하기, 읽기, 쓰기)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개인 특성 중에서도 거주지 선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인이다. 이민자의 경우, 연령과 함께 이민기간에 따라 거주지 선택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민기간이 길어질수록 거주지 선택에 있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민자들에 비해 기존 이민자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졸 이상으로 나누었다.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은 소득이 높은 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거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이는 동일 민족이 많은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Waldorf, Beckhusen, Florax and Graaff 2010). 한국국적 취득자 및 취업자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밀집거주지 이외의 거주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Logan and Zhang 2004). 가구소득과 자가소유는 다문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인들이다(Logan, Zharg and Alba 2002). 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적응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밀집거주지 외의 거주지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자녀의 취학 여부는 거주지 선택에서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취학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거주지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Chiswick and Miller 2005) 거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지역변인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역으로 구분하고, 인종별 공간적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인종변인과 지역변인과의 상호관계 변인(interaction term)을 추가하였다.

<표 5>는 분석 대상 다문화가족의 인종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다문화가족 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약 34세이며, 일본이 46.1세로 가장 높았고, 베트남이 24.7세로 가장 낮았고 모든 인종에서 대부분

표 4\_ 변인 설명

구분		변인	변인 설명
종속변인	밀집거주지 거주	enclave	밀집거주지 거주(= 1), 비거주(= 0)
개인/가구특성	연령	age	연령
	성별	gender	남성, 여성(ref.)
	이민기간	imm1	이민기간 5년 이하
		imm2	이민기간 6~10년(ref.)
		imm3	이민기간 10년 이상
	교육 수준	edu1	고졸 미만
		edu2	고졸 이상 대졸 미만(ref.)
		edu3	대졸 이상
	국적 취득	citizenship	한국 국적 취득, 미취득(ref.)
	취업 여부	working	취업, 미취업(ref.)
	가구소득	hhinc1	200만 원 미만
		hhinc2	300~400만 원
		hhinc3	400만 원 이상(ref.)
	자가소유	own	자가, 차가(ref.)
	자녀유무	child	취학자녀, 그 외(ref.)
	말하기	speaking	매우 잘함/잘함(ref.), 보통/미흡/매우 미흡
	읽기	reading	매우 잘함/잘함(ref.), 보통/미흡/매우 미흡
	쓰기	writing	매우 잘함/잘함(ref.), 보통/미흡/매우 미흡
인종	race1	중국(조선족)	
	race2	중국(한족)	
	race3	베트남	
	race4	필리핀	
	race5	일본(ref.)	
지역변인	거주지역	region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region2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region3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
		region4	경상권(부산, 울산, 경남, 경북)
상호작용	인종*거주지역	race1*region1	중국(조선족)*수도권
		race1*region2	중국(조선족)*충청권
		race1*region3	중국(조선족)*전라권
		race2*region1	중국(한족)*수도권
		race2*region2	중국(한족)*충청권
		race2*region3	중국(한족)*전라권
		race3*region1	베트남*수도권
		race3*region2	베트남*충청권
		race3*region3	베트남*전라권
		race4*region1	필리핀*수도권
		race4*region2	필리핀*충청권
		race4*region3	필리핀*전라권

표 5\_ 인종별 다문화가족 특성

구분	변인	전체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등)	베트남	필리핀	일본	
표본수		33,455	14,403	5,338	8,425	2,528	2,761	
개인 / 가구 특성	나이	연령	34.05	38.65	33.48	24.71	32.86	40.69
	성별	남성	0.04	0.07	0.04	0.00	0.01	0.05
	이민기간	이민기간 5년 이하	0.58	0.40	0.74	0.92	0.45	0.27
		이민기간 6~10년	0.26	0.36	0.19	0.07	0.43	0.24
		이민기간 10년 이상	0.17	0.24	0.07	0.01	0.12	0.49
	교육 수준	고졸 미만	0.34	0.31	0.33	0.59	0.04	0.01
		고졸 이상 대졸 미만	0.45	0.53	0.46	0.37	0.34	0.38
		대졸 이상	0.21	0.16	0.21	0.05	0.62	0.61
	국적 취득	한국국적 취득	0.37	0.58	0.24	0.14	0.51	0.05
	취업 여부	취업	0.40	0.50	0.37	0.22	0.50	0.36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67	0.64	0.62	0.76	0.77	0.59
		300~400만 원	0.29	0.32	0.34	0.22	0.18	0.35
		400만 원 이상	0.04	0.04	0.04	0.02	0.06	0.06
	자가소유	자가	0.20	0.25	0.10	0.02	0.32	0.57
	자녀유무	취학자녀	0.39	0.42	0.34	0.35	0.33	0.53
말하기	보통/미흡/매우 미흡	0.19	0.03	0.31	0.36	0.18	0.24	
읽기	보통/미흡/매우 미흡	0.19	0.06	0.32	0.33	0.16	0.24	
쓰기	보통/미흡/매우 미흡	0.26	0.09	0.39	0.41	0.27	0.43	
지역 변인	거주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0.50	0.64	0.54	0.30	0.36	0.44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0.11	0.08	0.09	0.15	0.15	0.12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	0.12	0.08	0.11	0.14	0.23	0.20
		경상권(부산, 울산, 경남, 경북)	0.26	0.19	0.25	0.40	0.24	0.23

이 여성으로 조사되었다. 베트남 다문화가족 이민자는 이민기간은 5년 이하가 90% 이상이었고, 반면에 일본은 10년 이상이 약 50%로 나타났다. 이민기간이 짧은 베트남은 평균연령이 낮았고, 반대로 이민기간이 긴 일본의 경우는 평균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등은 고졸 이상 대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베트남은 고졸 미만이 높게 나타났으며, 필리핀과 일본은 대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필리핀과 일본 다문화가족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조선족과 필리핀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비율

이 과반수 이상이었으나, 일본은 약 5%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중국 조선족과 필리핀이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었으나, 가구소득은 모든 인종에서 20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일본의 경우 57%의 자가소유 비율을 보여주었으나, 다른 인종에서는 낮은 자가소유를 나타내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2%의 자가소유 비율을 보여주는 데, 이는 연령이 낮고 이민기간이 짧은 다문화가족 이민자들이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아 낮은 자가소유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말하기, 읽기, 쓰기는 중국 조선족이 보통 이하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다른 인종에 비하여 언어능

표 6\_ 밀집거주지 거주 추정 결과

변인	계수값	변인	계수값
Intercept	-0,583***	-	-
age	0,005***	re1	1,023***
gender	0,735***	re2	0,504***
imm1	-0,071*	re3	-0,558***
imm3	-0,102**	-	-
educ1	-0,064**	race1*re1	1,925***
educ3	-0,037	race1*re2	-0,056
citizenship	-0,048	race1*re3	0,444***
working	0,039	-	-
hinc1	0,101	race2*re1	1,751***
hinc2	0,241***	race2*re2	-0,187
child	-0,056	race2*re3	0,178
own	0,011	-	-
speaking	-0,096**	race3*re1	-1,502***
reading	0,069	race3*re2	-1,626***
writing	0,006	race3*re3	-1,146***
race1	-1,055***	-	-
race2	-0,710***	race4*re1	-2,272***
race3	0,449***	race4*re2	0,260
race4	0,085	race4*re3	1,185***
Obs.	33,455		
R-square	0,269		

주: \*\*\*p<0.01; \*\*p<0.05; \*p<0.1.

력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모든 인종에서 높게 나타났고, 베트남은 경상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은 밀집거주지 거주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다. 연령(age)이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밀집거주지에 많이 거주하였다. 이민기간 5년 이하의 최근 이민자들(imm1)은 이민기간 6~10년 이민자들(imm2)에 비해 밀집거주지에 적게 거주하였으며 이민기간 11년 이상의 이민자들(imm3)은 이민기간 6~10년 이민자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고졸 미만 이민자들(educ1)과 대졸 미만 이민자들(educ2)의 밀집거주지 거주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고졸 미만 이민자들은 대졸미만 이민자들(educ3)에 비해 밀집거주지에 적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한국국적 취득(citizenship), 취업 여부(working), 자가소유(own), 취학자녀 변인(child)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hhinc)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도 출되었다. 구체적으로, 400만 원 이상의 이민자들(hhinc3)에 비하여 가구소득 300~400만 원의 이민자들(hhinc2)이 밀집거주지 거주가 높게 분석되었다. 반면에 한국어 실력 변수는 다소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말하기 능력이 낮은 이민자들의 밀집거주지 거주가 낮게 나타났으나, 읽기 및 쓰기 능력은 밀집거주지 거주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할 경우,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각각의 변인들은 상호작용 변인의 참조집단을 나타낸다. 즉, 인종의 경우는 상호작용하는 변인인 지역의 참조집단인 경상권에서의 인종별 밀집거주지 거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지역변인은 인종변인의 참조집단인 일본의 지역별 밀집거주지 거주를 나타낸다. 따라서 경상권의 경우 중국 조선족 및 중국 한족 등은 밀집거주지에 조금 거주하고 베트남 다문화가족은 밀집거주지에 많이 거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상권에 비해 수도권과 충청권 다문화가족이 밀집거주지에 많이 거주하며, 전라권 다문화가족은 조금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호작용 변인에서 중국 조선족의 경우, 수도권(race1\*re1)과 전라권(race1\*re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참조집단인 경상권의 일본인에 비하여 높은 밀집거주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중국 한족 등은 수도권(race2\*re1)에서만 유의미하게 참조집단에 비하여 높은 밀집거주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는 경상권의 일본인에 비하여 모든 지역에서 낮은 밀집거주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상권에서의 밀집거주지 형성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는 참조집단에 비하여 수도권(race4\*re1)에서는 낮게, 전라권(race4\*re3)에서는 높은 밀집거주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인종별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적 클러스터 패턴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최근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분석 내용에 있어,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미시적 공간 수준(읍, 면, 동 단위)의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 공간분포를 출신 국가별로 파악하고 밀집거주지 거주 결정요인을 통계적 추론방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중국 조선족과 한족 등 기타 민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출신의 다문화가족은 전국 차원에서 상당히 차별화된 밀집거주지 공간분포 패턴을 보여주었다. 한국어를 비롯하여 한국문화에 친숙한 중국인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집거주지를 형성하고 높은 밀집거주율을 보여주었다. 주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이룬 베트남인은 주로 대경권과 동남권에 위치한 농촌에 밀집거주지를 형성한 반면에, 다양한 국제결혼 동기를 가진 필리핀인은 충청권과 전라권에 밀집거주 패턴을 보이면서 제주도에도 밀집거주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와 달리 이민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은 주로 수도권과 인접

한 시·도에 밀집거주지를 형성한 채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강한 밀집거주 성향을 보여주었다.

출신 국가별로 상이한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분포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동화를 지원하는 인프라시설의 입지결정 과정에서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미시적인 공간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2013년 6월 기준으로 전국 211개소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출신 국가별 밀집거주지의 공간분포를 고려하여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제한된 인력과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정주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국적의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가 공간적으로 인접하거나 중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인종 간에 사회적·공간적인 융화를 도모하는 정책이 수도권 차원에서 별도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특정 국가 출신 밀집거주지가 많거나 밀집거주율이 높은 경우, 공간적으로 집약된 형태를 보이는 특정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를 공생적 이웃 혹은 지역성장의 동반자적 요소로 인식하여, 사회/경제/문화적 동화에 목적을 둔 다양한 공간정책을 지역 특화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최초 이민자의 선점효과에 의해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출신 국가별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분포가 크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점차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가 자칫 범죄와 빈곤을 재생산하는 게토(ghetto)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분포 패턴을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자기상관성만을 기준으로 밀집거주지를 도출하였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를 보다 면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역별로 전체 거주인구에서 차지하는 다문화가족의 비중이나 내국인과의 공간적 분리 정도, 다문화가족 관련 인프라의 보급 수준 등과 같이 밀집거주지와 관련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밀집거주지의 공간분포를 규명하는 데 있어 적합한 공간 분석단위에 대한 면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도 단위만을 제공하고 있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시자료에서 읍·면·동 단위에서의 원시자료 제공 및 읍·면·동 단위의 지역변인이 구축된다면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 분포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하여 전국 지자체별로 관련 정책 수립 시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전국 읍·면·동 차원의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분포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와 관련된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나아가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함께 향후 다문화가족의 정주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주인구로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동화와 그들의 정주 공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김희철, 안건혁. 2011. 이주회로별 수도권 외국인 거주지역 공간분포와 영향요인: 전문인력과 노동자 유형의 외국인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6권, 5호: 233-248.

민성희, 박정호. 2013. 다문화가족 이민자의 한국어실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6권, 2호: 179-208.

박대식. 2010. 농촌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 개선방향. *국토* 342호: 31-38.

박세훈, 이영아, 김은란, 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안양: 국토연구원.

박세훈, 정소양. 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64권: 59-76.

박신영, 김준형, 최막중. 2012. 외국인 노동자 밀집거주에 의한 근린효과: 서울 가리봉동·대림동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7권, 5호: 217-230.

박윤환. 2010.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48권, 4호: 429-453.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5월호. 과천: 법무부.

손승호. 2008.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변화와 주거지분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권, 1호: 19-30.

이성우, 민성희, 박지영, 윤성도. 2005. 로짓, 프라빗 모형 응용. 서울: 박영사

이진영, 남진. 2012.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7권, 1호: 85-100.

이희연, 김원진. 2007. 저개발 국가로부터 여성 결혼이주의 성장과 정주패턴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권, 2호: 15-33.

이희연, 노승철. 2012. 고급통계분석론. 고양: 법문사.

정지은, 하성규, 전명진. 2011.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선택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6권, 6호: 117-129.

최병두, 임석희, 안영진, 박배균. 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공간. 서울: 푸른길.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2권, 3호: 91-1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2.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 행정안전부.

Anselin, L. 1995.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LISA. *Geographical Analysis* 27, no.2: 93-115.

Bartel, A. P. 1989. Where do the new U.S. immigrants live? *Journal of Labor Economics* 7: 371-391.

Borjas, G. J. 1998. To ghetto or not to ghetto: Ethnicity and residential segreg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44, no.2: 228-253.

Chiswick, B. and Miller, P. 2005. Do enclaves matter in immigrant adjustment? *City & Community* 4, no.1: 5-35.

Fawcett, J. T. 1989. Networks, linkages, and migration system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 671-680.

Jennissen, R. P. 2004. *Macro-economic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Amsterdam: Dutch University Press.

Logan, J. R. and Zhang, W. 2004. Identifying Ethnic Neighborhoods with Census Data—Group Concentration and Spatial Clustering, in *Spatially Integrated Social Science*, Cary, NC. eds. Michael, Goodchild, and Donald Janelle, 11-12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ogan J. R., W. Zhang, and Richard D. Alba, 2002. Immigrant enclaves and ethnic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 no.2: 299-322.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and Taylor, J. E.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 431-466.

Myers, D. and Lee, S. W. 1996. Immigration cohorts and residential overcrowding in southern California. *Demography* 33, no.1: 51-65.

Waldorf, B., J. Beckhusen, Florax, R. and de Graaff, T. 2010.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language acquisition among immigrants in U.S. metropolitan areas. *Regional Science, Policy and Practice* 2, no.1: 39-49.

- 논문 접수일: 2015. 7. 10
- 심사 시작일: 2015. 7. 23
- 심사 완료일: 2015. 11. 23

## 요약

주제어: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 국가별 공간분포, LISA분석, 밀집거주지 이주 결정요인

본 논문은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출신 국가별 공간분포 특성과 밀집거주지 이주 결정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 관련 지역 공간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광역적 시·도 단위로 다문화가족의 분포 현황을 파악한 후 LISA분석을 활용하여 미시적 공간단위(읍·면·동)에서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항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밀집거주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광역적 수준에서 다문화가족이 형성하고 있는 밀집거주지는 출신 국가별(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등 기타 민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로 차별화된 공간적 입지 특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국인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는 높은 밀집 거주율을 보인 반면, 베트남 다문화가족은 대경·동남권에 높은 밀집 거주율을 보였다. 이외에 필리핀 다문화가족의 경우 충청권 및 전라권에 밀집거주지 분포패턴을, 일본 다문화가족의 경우 중국 다문화가족과 유사하게 주로 수도권과 인접 지역에 높은 밀집 거주율을 확인하였다. 이항 로짓모형에서의 분석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다문화가족 정주화 현상의 가속화 추세를 감안했을 때,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다양한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 공간분포 특성과 거주지 결정요인은 향후 다문화가족의 주요 정주공간으로서 밀집거주지 관련 공간·지역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